

# 미래에셋대우 임직원 주도로 사회공헌 활동



미래에셋대우가 '임직원 주도의 혁신적 사회공헌'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8년 희망체인봉사단을 신설하고 임직원 70명을 봉사단 희망체인리더로 위촉해 전국 지역 단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조직을 구축했으며, 10개의 대표모델을 선정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희망체인봉사단은 발대식 이후 현재까지 약 8건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가장 먼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캠페인과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왔다. 서울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업무협약을 하고 4차례에 걸쳐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한강 이촌공원 나무심기 활동에 참여했다.

봉사단은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에게 직접 조립한 태양광 랜턴을 보내주는 글로벌 에너지 나눔 프로젝트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공부하기 위해 불빛을 찾아 공학으로 향한다는 에너지 빈곤국 어린이들의 사연에 리서치센터와 컴플라이언스 임직원들을 시작으로 지속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총 120개 태양광 랜턴을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에너지 빈곤국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강남지역에서는 송파구의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브라스앙상블에게 공연의 기회를 주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트브라스앙상블은 장애인 연주팀 사상 최초로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공연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 음악회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음악을 통해 특별한 나눔과 소통을 가질 수 있었다.

희망체인봉사단은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딸기 농장 체험과 청주새날학교 책상·책장 기부, 장애인들을 위한 공부방 환경개선 사업, 미숙아를 위한 목 베개와 턱받이 핸드온 봉사 등의 사회공헌 활동도 벌이고 있다.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따뜻한 자본주의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새 기업문화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열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봉사단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교환 장학금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세계 속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700여명 규모로 장학생을 선발해 2007년부터 14년간 5천800여명의 해외 교환학생을 지원했다.

박현주 회장은 2010년부터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액을 재단에 기부했다. 지난 9년간 기부한 금액은 232억원에 이른다. ❶



## 고객의 자산을 키우기 위해 세계로 넓히는 일! 우리는 글로벌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국의 혁신성, 인도의 확장성, 베트남의 가능성, 중국의 역동성...  
그곳이 세계 어디라도, 미래에셋대우와 함께라면 당신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1%(국가별 거래수수료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